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말씀 / 이사야 54:1-17

요절 / 이사야 54:1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55장은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지치고 피곤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배울 54장 말씀은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생활 속에서 꿈과 비전을 상실하고 절망해 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선포하여 주심으로 그 백성들의 가슴속에 거룩한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현실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시간 성령께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I. 외쳐 노래할지이다(1)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보통의 여인은 결혼하여 때가 되면 당연히 아이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성경 시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와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시127:3,4,5) 하였습니다. 자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축복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과 같이 든든합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희망이요 영광입니다. 자식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법관도 나오고 의사도 나옵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어머니는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아픔과 희생과 고난도 많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희망이 넘치기에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잉태치도 못하고 생산치도 못하는 여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희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남편에게서까지 버림당하여 홀로 된 여인은 정말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6a). 이런 여인들은 비관적인 생각, 운명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고, 쓸쓸함과 외로움으로 우울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1b.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로 표현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여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당연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남편에게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맞이하실 때는 그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들딸을 낳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특별한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세계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람이 났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강대국들에게 한 눈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서서 넘치는 진노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강대국의 우상들이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살아 보라’ 하나님은 70년동안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포로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을 포로삼은 바벨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춤도 춰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남편 있는 여인처럼 자식을 쑥쑥 낳아서 크게 번성하는 것을 그저 부러운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으로 밤을 지새우며, 탄식으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속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 노래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는 신세한탄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영어성경에 보면 “burst into song, shout for joy! Praise the LORD!” 터질듯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라고 하십니다. 멜랑콜리한 슬픔의 노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하라고 하십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탄식할 이유만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요구는 잔인한 일입니다. 조용히 한쪽 구석에 쪼그라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니면 미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1절 후반절을 다시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된 여인같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남편있는 강대국 바벨론의 자손보다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큰 소리로 외쳐 노래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사60:1,22)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겨우 살아남은 작은 자이지만 장차 천 명을 이루겠고, 망해버린 이스라엘이 장차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비전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66:7,8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나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 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멸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나라와 민족을 이루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나라를 회복해도 강대국이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치 않으십니다. 단 하루 한 순간이면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크게 외쳐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간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어렵게 해방되었지만 바로 6.25 전쟁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원조가 없으면 당장 나라를 유지하기도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버림받아 홀

로 된 여인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는 깊은 슬픔과 가슴 절절한 한이 서린 노래였습니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 필적에 /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다'(울밑에 선 봉선화) 당시 애국지사들과 억압받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생과 한숨 속에 조국강산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노래입니다. 목포의 눈물, 눈물 젖은 두만강, 황성옛터 같은 노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슬프고 한 맺힌 노래만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절망 중에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잘 살아보세' 같은 노래를 부르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럴 때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사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에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임에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영적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바다 끝 작은 섬에서부터 도시 골목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캠퍼스에는 우후죽순처럼 많은 선교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세계선교를 앞장서서 감당하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56년 전 광주에서 시작된 우리 UBF 모임도 지극히 작고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외쳐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계선교 때마다 외쳐 부르는 구호가 무엇이죠? '성서한국, 세계선교! 장막터를 넓혀라!' 외치며 기도와 전도에 전념했습니다. 어찌하든지 1대1 말씀공부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얻으려 /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 부른다"(찬송가 507) 찬송을 부르며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전 세계 99개국에 2,000여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임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2041년까지 미개척 140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33개국에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섬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품고 크게 외쳐 노래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7부 공동체에 주신 비전을 품고 합심해서 노래해야 합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혼자 부를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부를 때 더 큰 힘이 생깁니다. 요즘 개봉영화인 '1987'은 1987년 6월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6월항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에는 대학생들만 민주화운동을 주로 했는데 이때는 전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노래했기 때문입니다. 재작년에 촛불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노래는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기쁘고 힘있는 노래는 기쁨과 힘을 줍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 어둡고 슬픈 마음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기고 역경을 헤쳐 나갈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에 차꼬까지 차여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차꼬가 풀려서 유유히 감옥을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때 바울이 전한 유명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이것이 바로 찬송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곳에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두려움과 절망, 슬픔의 감옥에 가두고 죄의식의 차꼬로 채워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풀어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2018년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비전을 보고 어느 때보다 찬양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장막터를 넓히라(2-17)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당시 여인은 가족용 장막을 세우고 유지하는 일을 책임졌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은 1인용 장막만 치면 됩니다. 요즘은 많은 학생들이 1인용 원룸,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앞에도 원룸 건물입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 살면 나도 모르게 몸도 마음도 좁아집니다. 믿음도 비전도 작아져서 오직 자길 살 궁리만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게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그런 곳에서도 살만합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 거기에 푹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1인용 텐트가 아니라 장막터를 넓히라고 명령하십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으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차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좌우로 퍼져서 열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 몸 겨우 누일 1인용 텐트 정도가 아니라 넓은 정원과 호수, 축구장만한 놀이터를 갖춘 대저택을 지어야 합니다.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열방을 얻을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장막터를 넓히고 또 넓히되 땅 끝까지 넓히라고 하십니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스케일을 넓혀야 합니다. 아직은 빈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장막터를 넓히기 위해서는 휘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마음이 좁아지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오히려 더 힘들어 집니다. 줄을 길게 하라는 것은 기도의 줄을 길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면 5분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요회에 서부터 시작하여 5개요회의 동역자, 양들까지 그리고 직장동료들, 학교 급우들, 가정복음화할 식구들 등등 기도의 줄을 넓히면 기도가 더욱 힘이 넘치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합니다. 나아가 선교지까지 기도의 줄을 넓히면 앉아서 한국과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것은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기도해도 복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시련 앞에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이 분명하면 어떤 시련과 죄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스케일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81:10절에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채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며 전 세계를 품고 열

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 수많은 감리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7부 가운데도 장막터를 넓혀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사랑방을 고친다고 할 때 벽에 페인트칠하고 청소만 좀 하겠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좋은 어거스틴 목자님은 천장부터 뜯어 고치더니 구식탱탱 형광등을 과감히 버리고 아주 세련된 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환기시설을 설치해서 공기의 질을 아주 나쁨에서 좋음으로 바꾸고, 수도시설을 설치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커피 내리는 기계를 설치해서 커피를 마시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기다가 피곤한 사람은 쉬라고 소파까지... 그야말로 사람사는 공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작년 한해 이 넓어진 장막터에서 동역자들은 쉬며,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양들을 섬기며, 2부, 3부, JBF 양들까지 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사랑방만 넓혔어도 이정도인데 믿음으로 더 넓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작년에 광종목자님 가정, 정완목자님 가정, 윤희, 효국, 동범, 소희 자매님까지 기동같은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7부의 터를 아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또 작년 가을수양회 때부터 저녁기도 모임을 활성화하여 기도의 줄을 길게 늘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7부의 장막터를 계속해서 넓혀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의 장막터는 넓어 졌지만 마음의 장막터는 아직도 좁디 좁은 채로 자기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부 백악센터도 처음 터를 넓혀서 건물을 지었지만 마음의 장막터가 닫혀 버렸을 때 채워지는 역사가 아닌 빈 역사일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장막터를 넓혀서 자기 생활에만 매여있지 않고 동역자와 양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고, 생각과 스타일이 다른 동역자라 할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합심성령의 그릇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여러모양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을 돌아볼 때 열매보다 허물진 자신의 모습만 보이고 빈 그릇만 있을 때 힘이 빠집니다. 해봤자 안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점점 헌신의 휘장이 줄어들고 기도의 줄이 짧아지기 쉽습니다. 더 이상 노래도 부르기 싫습니다. 노래 부를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며 옛 추억이나 되새기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참 남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우리의 참 남편 하나님은 보통 남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거룩하신 분입니다. 참 남편 하나님은 죄로 인해 버림받은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주십니다. 7,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잠시 버리셨습니다. 잠시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긍휼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영원한 자비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

님은 노아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 주셨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는 53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고전13:8a).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만유를 회복하시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탄을 멸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받고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집니다. 분쟁도, 전쟁도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남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외쳐 노래하며 장막터를 넓히기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새해가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고 안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외쳐 노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며, 기도의 줄을 길게 하고, 복음신앙의 말뚝을 견고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7부 장막에도 은혜로운 양들로 가득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